

광주 기업들, 'AI 데이터'로 생산 효율성 높인다

AI사업단, 금호타이어 교육 호응 챗GPT 활용 타이어 품질 등 분석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제고 기대 "AI 직무 전환 지원·일자리 확대"

광주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챗GPT(Chat GPT)'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광산구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특화 맞춤형 교육'인 '챗GPT를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실무 적용을 통해 광주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평택 공장 직원들



3일 광주 광산구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직원들이 'AI 특화 맞춤형 교육'인 '챗GPT를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고 있다.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른 여러 기업과도 교육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팩토리 이해 △챗GPT와 엑셀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실무 데이터 분석 △타이어 생산 불량 데이터 분석 △타이어 생산 품질 측정 데이터 분석 △타이어 생산 불량과 품질의 관계 분석 △생산 과정 효율성 및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AI 커리어맵'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AI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AI 커리어맵'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술,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 AI 비즈니스 개발 등 5개 직무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 융합 엔지니어링 등 12개 직군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AI 특화 맞춤형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인별 직무 능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AI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교육을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AI

분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업무에 AI를 접목해야 하는 이들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AI 분야로의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I 특화 맞춤형 교육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AI 특화 맞춤형 교육 포털(<https://eli.so/2024aica>)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I 특화 맞춤형 교육 운영사무국(02-6240-4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은 "챗GPT를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현대차·제네시스, '2024 레드닷어워드'서 수상

디자인컨셉트 부분 본상 4개

현대자동차·제네시스는 3일 '2024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컨셉트 부문'에서 총 4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 중 디자인 컨셉트 부문은 컨셉트, 프로토타입, 출시 전 제품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현대차는 지난 CES 2024에서 최초로 선보인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컨셉트인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와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가 '자율주행(Autonomous)' 분야에서 본상을 받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DICE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로, 차별화된 AI 기반 자율주행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DICE는 현대차 고유의 수직 아치형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개방감과 아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탑승객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공공 모빌리티SPACE는 탑승객 개개인에 최적화된 공간과 맞춤형 시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썬타페 XRT 컨셉트는 '수송 디자인(Cars and Motorcycles)'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 썬타페 XRT 컨셉트는 5세대 썬타페를 기반으로 오프로드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디자인됐다.

제네시스는 '수송 디자인(Cars and Motorcycles)' 분야에서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컨셉트(NEOLUN·네오룬)'로 본상을 받았다. 네오룬은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과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며 제네시스만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보여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섬세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컨셉트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그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유·스퀘어 내년초 철거... 터미널 구역은 영업

신세계 확장...아트홀 등 영업종료 12월말까지 CGV영화관 운영

광주신세계 확장을 위해 최근 유·스퀘어 문화관이 15년 만에 영업을 종료한 가운데 터미널 구역은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유·스퀘어 전체 부지 9만9000㎡(3만평) 가운데 철거 구역은 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사이 2만5121.6㎡(7600여평) 6층 규모의 유·스퀘어 문화관이다. 광주신세계는 이곳을 철거하고 백화점을 짓는다.

유·스퀘어 문화관에는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 CGV 터미널점,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서 있는데 지난 2009년 문을 연 2곳의 아트홀은 지난달 30일 15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고 CGV 터미널점은 12월 말까지 영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에 입점한 20여개의 음식점과 카페 중 상당수 금호고속 측과 협의가 마무리됐고 4, 5곳이 영업 종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신세계는 CGV 터미널점 영업을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초 유·스퀘어 문화관의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터미널 사업은 금호고속이 위탁 운영하는 만큼 100여개의 크고 작은 점포는 그대로 영업을 한다.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영업했던 일부 점포도 터미널 구역으로 옮겨 영업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유·스퀘어 문화관 입주 점포들 간 몇 군데를 제외하고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터미널 구역은 기존과 변화 없이 영업을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 1일 4700억원 규모의 양수 대금 완납으로 유·스퀘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으로부터 모두 양수받게 됐다. 이로써 유·스퀘어는 전체 지분 중 광주신세계가 67%를, 금호고속은 33%를 소유하게 됐다.

나다운 기자

중기부, '아기유니콘'에 광주기업 2곳 선정

바이오트코리아·씨너지 시장개척자금 등 지원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거대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에 광주기업 바이오트코리아와 씨너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 기업은 △치료물질 전달용 의료가기 개발기업인 '바이오트코리아'(대표 장영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씨너지(대표 진용남)'이다.

바이오트코리아는 2021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남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40여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펀딩을 완료했고 'CES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 씨너지는 세계 기업들의 주요 화두인 알이(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목표로 클린에너지 거대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다.

아기유니콘 사업은 혁신성·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

척자금 3억원이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보증 최대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부터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세계적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아기유니콘 기업은 250개사, 예비유니콘은 111개사가 선정됐다.

광주 시도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G-유니콘 육성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G-유니콘 육성 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올해 △재난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에니트' △생체정보 인증과 결제 통합솔루션 기업 '고스트패스' △환경 중심적(ecocentral) 생물농업 전문기업 '젠153바이오' △인공지능(AI) 실시간물류관제 최종구간(라스트마일) 자동화 솔루션 기

업 '클라우드스톤' △중고명품 플랫폼 기업 '팜팜' 등 5곳을 'G-유니콘' 기업으로 최종 선발해 본격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발된 1기 G-유니콘 기업 5개사는 신규 고용 16명, 매출액 26억원 증대, 투자유치 204억원 달성, 지식재산권 41건 출원·등록,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전 지분투자 단계에서 176억원의 투자유치를 손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돼 지역 기업의 5년만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 'G-유니콘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향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난해 G-유니콘 기업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5곳에 대해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창업초기기업이 세계적 거대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종합기획직원 채용설명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2025년도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는 채용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의 한국은행 입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부 채용담당자가 직접 한국은행 비전, 전형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어서 한국은행 입행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전문 부문 채용 등 한국은행 입행을 준비하는 지방인재들에게 유익한 채용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062-601-1109, 1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